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5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경찰청



4월 28일 (일) 14:00

Next Home Match FA CUP

광주 vs 충주 5월 8일 (수) 19:00



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jfc0

Photo Gallery

2013/04/20 (토) 14:00 고양전



Review

투혼이 만들어낸 극적인 첫 홈경기 승점



비록 승점 1점에 그친 것은 아쉬웠지만 올 시즌 안방에서의 연패 사슬을 끊어내는 의미 있는 무승부였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안방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5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는 후반전 44분 고양 HIFC에게 선취골을 내주고 패색이 짙었지만, 추가 시간 김수범의 극적인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뒀다.

전반 10분 동안은 고양의 두 차례 세트피스에 위기를 겪었으나 광주는 이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경기 흐름을 주도해나갔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김은선의 조율이 빛을 발하며 여름과 김준엽 등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문전을 위협했다. 고양 역시 진창수를 중심으로 광주의 허점을 노렸으나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두 팀 전반은 0-0으로 마쳤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경기 내용은 고양으로 기울어졌다. 후반 9분 주민규의 헤딩슛이 광주의 골대를 맞았고 후반 23분엔 장신 수비수 최병도의 헤딩슛을 광주 박희성이 골문에서 간신히 건어내는 등 위기의 연속이었다. 반격에 나선 광주 역시 김준엽과 김수범 등이 고양 PK박스 내-외곽에서 두 차례 정도 슈팅을 날렸지만 안타깝게 모두 골문을 벗어났다.

이렇게 무승부의 냄새가 짙게 나던 경기는 막판 2분 사이에 한 골씩 주고받으며 극적인 앙상으로 바뀌었다. 후반 44분 광주는 고양의 최병도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이빙 헤딩 선취골을 내준 것. 시간 상 광주의 패배가 확정적인 느낌을 주는 골이었다. 하지만 이 실점 직후 시도한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광주는 후반 46분 오른쪽 윙백 김수범이 임선영의 크로스를 날카로운 원발 슈트로 연결하며 천금 같은 동점골을 기록했다.

Preview

광주, 쓰디 쓴 경험이 승리의 보약으로 작용할까?



올 시즌 개막 후 현재까지 K리그 챌린지에서 무패 행진을 벌이며 '2강'으로 떠오른 팀들은 상주상무와 경찰축구단이다. 지난 주말 양 팀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군경더비'를 치렀고 이 경기를 통해 경찰의 전력의 확실하게 드러났다. 결론은 경찰 역시 상주만큼 강한 팀이라는 것이다.

여범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FC가 4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안방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찰축구단을 상대로 2013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미 광주는 상주와 두 번 경기를 치러 두 번 모두 패했기에 경찰에 비해 열세라는 외부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게 광주 선수단의 한결같은 각오다.

먼저, 부상을 털고 고양전을 통해 복귀한 핵심 미드필더 김은선의 존재감은 역시 든든하다. 고양을 상대로 중원에서 여름과 호흡을 맞추며 안정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김준엽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며 김호남의 센스 있는 플레이는 특히 측면에서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다만 공격진의 루시오가 최근 상대의 집중마크 및 체력 저하로 날카로움이 무뎠다. 임선영을 비롯해 안동혁, 박정민 등의 공격자원들은 물론 김은선, 김호남에 김수범까지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슈팅을 때린다는 자세로 루시오의 무거운 짐을 나눠 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측면에 비해 중앙이 다소 약한 느낌을 주는 경찰이기에 높은 곳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직후의 과감한 슈팅 시도야말로 상대 수비를 뒤흔들 최고의 무기다.

경찰청 - 상주만큼 강하고 상주보다 파괴적인 팀



2위 상주보다 두 경기를 덜 소화했음에도 현재 승점 10점으로 K리그 챌린지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체적인 전력은 비슷해도 주도하는 경기 내용에 비해 결정력이 떨어지는 고민을 안고 있는 상주와는 달리 정조국, 양동현, 김영후 등 과거 K리그에서 소문난 골잡이들의 활약상이 돋보이며 착실하게 승점을 쌓고 있다.

날카로운 원발을 보유한 염기훈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개인돌파가 특기인 배기중이 포진한 양 측면은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무게감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받치는 양상민-오범석이 포진한 '국가대표급' 좌-우 윙백 콤비는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제 몫을 확실히 하고 있다.

비록 중앙 수비진의 무게감이 1, 2선에 포진한 선수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작년 K리그에서 인천유나이티드의 돌풍을 견인했던 수문장 유현의 안정감은 경찰 수비라인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더불어 송유걸, 문기환, 김동우, 권혁진 등의 백업라인이 언제나 주전으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주전과 비주전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도 긴 시즌을 치러야 하는 조동현 감독을 든든하게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베스트 일레븐



경찰청 염기훈

업그레이드 된 '원발의 달인'

정조국과 양동현, 김영후 등이 경찰의 주득점원이지만 이들의 위력을 배가시키는 건 단연 염기훈의 칼날 같은 원발 킥이다. 최근 몇 년 간 본인의 소속팀이었던 수원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그 기량은 여전하고 특히, 약점으로 지적 받았던 시야도 한층 넓어졌다.

Focus

김수범 “엄청난 활동량과 불굴의 정신력”



88분 동안 상대와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그야말로 극심한 체력전을 벌였다. 그러다가 정규 시간을 딱 1분 남긴 89분에 세트피스를 내렸고 여기에서 실점해버린다. 이 정도 되면 마지막 남은 힘조차 다 빠져버려 그대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실제 경기장의 거의 모든 이가 광주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는 바로 그 찰나, 다소 의외의(?) 인물이 구세주로 등장했다.

오른쪽 윙백 김수범. 경기 내내 줄기차게 공-수를 넘나들며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은 그가 경기 막판 추가시간에 반대편 측면에서 임선영이 올려준 볼을 고양 문전에서 안정적인 볼 트래핑으로 잡아놓은 후, 절묘한 원발 감아차기로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올 시즌 초반 악몽 같았던 홈 3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골.

반대편의 박희성과 콤비를 이루며 광주의 오른쪽 터치라인을 책임지는 김수범은 윙백의 필수요건인 왕성한 체력과 빠른 스피드는 기본, 발재간도 있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살려나올 줄 알고 상대 측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올려주는 크로스의 질도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 고양전에서 봤듯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마지막 빈틈을 찾아내는 그 정신력과 집중력이 김수범의 진정한 가치다.